



시립합창단 임한귀 지휘자

교향악단 이현세 지휘자

# 진한 감동의 물결이 일렁인다

## 올 광주시립예술단체들 공연 기지개... 교향악단 등 3곳 새 수장들 기대

**교향악단**  
14일 이현세 취임연주회  
권혁주 협연

2014년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이 기지개를 켜다. 특히 올해는 교향악단 등 3개 예술단체가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여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올해 공연의 물결은 교향악단이 뜬다. 1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이현세 상임 연주자 취임 연주회는 클래식 팬들이 기다리는 공연이다. 첫 공연의 연주레퍼토리는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이다. 협연자로 권혁주가 출연,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협주곡'을 연주한다.

이 지휘자는 곧바로 23일 다시 관객들을 만난다. '그대와 춤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공연은 춤곡들로 꾸며졌다. 첼리스트 김민지씨가 포커의 '헝가리안 랍소디'를 협연한다. 그밖에 3월 14일 공연에서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중인 이스라엘 출신 피아니스트 아비람 라이케르트가 리스트의 '피아노협주곡 1번'을 협연하며 드뷔시의 '바다'도 만날 수 있다.

특히 광주시향은 5년만에 다시 서울 예술의 전당 교향악축제(4월14일) 무대에 오른다. 연주곡목은 베르디의 '루이자 밀라' 서곡, 파가니니 '바이올린협주곡 2번'(협연자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 드보르작 '교향곡 8번'이다. 4월 4일 광주 공연에서 먼저 만날 수 있다. 그밖에 전남대 예음홀에서 베토벤의 '운명'과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21번'(협연 문현옥 전남대 교수)을 들려준다.

합창단의 임한귀 지휘자는 3월13일 취임연주회를 갖는다.

레퍼토리는 세계 3대 오라토리오로 불리는 하이든 곡 '천지창조'다. 이곡은 하이든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헨델의 '메시아'를 듣고 감명을 받아 훗날 작곡한 곡이다. 전곡은 3부 34곡으로 총 연주 시간은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된다.

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박현재, 바리톤 김동섭씨와 클라리넷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협연한다.

합창단은 또 4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선다. 서울시립합창단과 합동공연으로 창작곡 '간타타'를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소년소녀합창단 윤영문 신임지휘자도 첫 연주회로 시민들을 만난다. 오는 6월 14일 정기연주회에서는 모차르트 음악과 한국민요, 한국춤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인다. 또 3월8일에는 동아시아문화도시 기념 공연에 참여하며 5월18일에는 광주민주항쟁 특별 공연을 연다. 윤진철 예술감독이 이끄는 국극

단은 창극 '동기호태'(5월14~15일)를 무대에 올린다. 지금까지 '수궁가' '심청가' 등 전통 판소리와 임방울, 안중근 등 역사적 인물을 무대에 올려온 국극단으로서는 과격적인 무대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비튼 작품으로 동기호태가 조선 시대로 돌아오면서 벌어진 이야기가 주된 줄거리다. 연출은 최수용, 대본은 이강운, 안무는 유장현, 작곡 김성국씨다.

극단(예술감독 박윤모)은 올해부터 광주 역사 인물 찾기 시리즈를 차근차근 제작한다. 첫번째 프로젝트는 오방 최홍중 목사의 삶을 그린 '오방 선생'(4월3일~6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최홍중(1880~1966) 목사는 독립운동과 한센인 치료에 일생을 바친 사람이다. 1911년에는 자신의 땅을 기증해 한국 최초의 한센인 치료시설인 광주 나병원을 설립했고, 1920년에는 광주YMCA를 창설하기도 했다.

전국연극제에서 여러차례 극본상을 받은 김창일씨가 극본을 썼으며 지역 출신으로 서울에서 활동중인 심재찬씨가 연출을 맡았다. 서울과 광주에서 활동하는 20여명의 배우들이 연을 시작했다. 국악관현악단(상임지휘자 김광복)은 3월20일 신춘음악회를 통해 시민들을 만난다.

김희조 작곡 '합주곡 1번'을 들려주며 가수 유지나, 일본 출신 기타리스트 하타 슈지가 국악관현악과 협연 무대를 선보인다. /김미은기자 mekim@



아비람 라이케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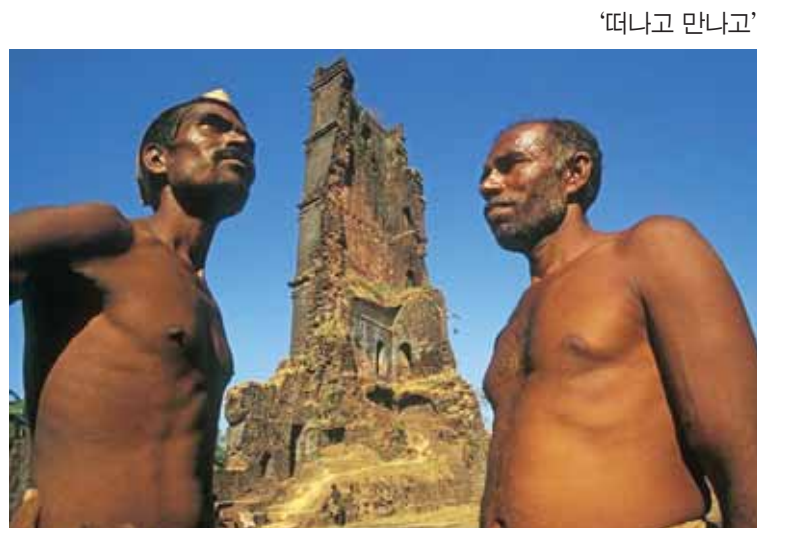
윤영문 지휘자



오방 최홍중 목사



오노레 도미에 '돈키호테'



'떠나고 만나고'

## 이별은 또 다른 만남

박하선 사진전, 3월9일까지 해양문화예술공간

'떠난다는 것은 헤어짐이 아니다. 또 다른 만남을 찾아나서는 것이다.' 광주시 동구 의재로에 있는 해양문화예술공간(이하 해와)은 3월9일까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박하선 씨를 초대해 '떠나고 만나고'를 주제로 사진전을 연다.

박씨는 전시에서 만주벌판과 중국 절강성, 일본, 우리나라 곳곳에 숨겨진 문화유산을 찍은 '고인돌' 연작과 옛감성 가득한 '골목풍경' 연작, 여행과 사람, 그리고 삶을 느낄 수 있는 '떠나고 만나고' 연작 등을 선보인다. 해와는 "박하선 작가가 그동안 찍은 작품들 중에서 베스트 컷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우연한 기회에 사진에 입

문했다. 해양대학을 졸업한 그는 향해사로 짧은 시절 세계 곳곳을 여행했다. 그때 생긴 카메라에 대한 관심이 그를 사진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

작가는 지난 1980년 '대양'전을 시작으로 '실크로드'(1990), '티벳'(1991), '문명의 저편'(2000), '천장(天葬)'(2009), '天命(天命)'(2012)전을 여는 등 세계 오지 및 분쟁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해왔다. 최근에는 한민족 상고(上古) 시대 역사에 대한 영상 작업 등 '대하 역사 다큐멘터리'에 집중하고 있다.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은 휴관한다. 문의 062-233-901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생오지문에 창작촌 수강생 모집

(재)생오지문에창작촌(대표 문순태)이 2014년도 문예창작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3월 15일 토요일 개강하는 2년 과정의 문예창작대학은 시창작, 시창작연구, 소설창작, 소설창작심화, 소설창작연구, 수필창작, 아동문학 각 부문 정원이 30명씩이며 소설창작 연구반은 20명이다.

교수진은 소설 부분 문순태·은미희·장마리 작가가, 시 부문 송수관·박순원·김성철 시인이, 아동문학 부문 윤삼현 작가, 수필 부문은 오덕렬 수필가가 맡는다.

글쓰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다. 단 소설심화반

은 소설창작반 1년 이상 수강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 연구반은 작품(소설은 단편소설 1편, 시는 3편 이상)을 제출(river1967@naver.com), 심사를 통과한 자료 제한한다.

수강신청은 기존 수강생은 20일까지, 신규 수강생은 21일부터 28일까지다. 시창작연구반과 소설창작연구반은 20일까지 제출한 작품을 심사해 추후 합격자를 공지한다. 수강료는 1년 40만원, 수강신청은 전화 또는 인터넷 접수(Http://cafe.daum.net/moonsoontae)로 가능하다. 문의 061-381-2405.

/박성천기자 kispark@kwangju.co.kr

since 1982

###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 점 062)227-9940  
목포점 061)262-9200  
서울점 02)765-9940

총장점 062)227-9970  
장흥점 080)222-9975  
순천점 061)752-9940

**광주 1등 맛집**

5회 연속 1등맛집 선정

2006년(17), 2008년(27), 2010년(37), 2012년(47), 2014년(57)

##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세미나, 가족모임, 비즈니스 미팅에는 역시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킨 광주 대표 맛집

**금수 1번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 1등맛집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맞춤형 출장 도시락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카페 보네르

www.geumsoojang.com